

2020학년도 서강대학교
모의논술 자료집(2차)
- 인문계열(인문사회) -

서강대학교 입학처

목 차

<input type="checkbox"/> 문제	3
<input type="checkbox"/>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7

■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50분입니다.
2. 답안분량은 800~1,000자입니다.

문제

[가]와 [나]의 결론과 시사점을 요약하고, [다], [라], [마], [바], [사]를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하시오.

제시문

[가] 일반적으로 **근대화**란 전근대적인 상태에서 근대적인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서 ‘근대적’이라는 것은 산업 혁명을 계기로 전통적인 농경 사회가 산업 사회로 변화하면서 나타난 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사회 변화를 뜻한다. 즉 근대화는 경제적으로는 경제 활동의 중심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변화하고, 정치적으로는 신분적 차별이 철폐되어 시민의 평등한 정치 참여가 확립되며, 사회 전반에 걸쳐 이성과 과학을 중시하는 합리주의적 경향이 두드러지는 변화를 의미한다.

결국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어 좀 더 향상된 생활 조건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근대화라고 할 수 있다.

- 미래엔 사회·문화, 213 쪽

[나] 과거 몇 십년 동안 사회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들은 1백여 개 이상의 나라들에 관하여, 부/성장과 다양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특징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축적했다. 결국 이 모든 나라는 각각 상이한 사회적·제도적 특징을 지닌 ‘있는 그대로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의 깊게 통계를 분석해 보면, 우리는 부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몇 가지 조심스러운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이 어지러운 숫자들로부터 번영, 심리적 안녕, 민주주의, 전통적 가치와 개인적 권한에 관한 사회학적 척도 등 많은 것들 사이의 흥미로운 관계가 나타난다. …..

1950년대 말에 정치사회학자 세이무어 립셋(Seymour Lipset)이 최초로 이런 종류의 객관적인 분석을 했다. 립셋의 주된 관심은 민주적 발전에 있었다. 당시 정치적·경제적·종교적 요인들이 각각 민주주의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한 학문적 논쟁이 진행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종교적 결정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유대-기독교에서 기원했다고 지적한 반면,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탈리아와 독일의 파시즘을 반례로 들었다. 립셋에게 거슬린 것은 양측 모두 가용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지 않아 보였다는 것이다. 통계적 관점에서 보면, 정치와 경제 시스템은 매우 ‘지저분’하다. 밥값을 할 줄 아는 사회학자라면 가장 근본적인 사회학적 원리들에 대해서도 수많은 예외를 발견할 수 있다.)

립셋은 민주적 발전에 관한 단순한 척도에서 출발하여 그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요인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와 교육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것들이 민주적 제도들을 지탱하는 것으로 보였다. 1959년에 립셋의 선구적인 논문이 발표된 이래 몇 십 년 동안 사회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들은 그의 지도를 따랐다.

- 윌리엄 번스타인, 부의 탄생

[다] 매미나 작은 비둘기가 높이 나는 봉을 비웃으며 말한다.

“우리는 한껏 날아올라도 낮은 느릅나무나 다목나무 가지에 이르고, 어떤 때는 거기에도 못 미쳐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봉새는 구만리나 올라가 남쪽으로 가려 하는 걸까.”

근교의 들판으로 나가는 사람은 세 끼 밥만 있어도 돌아올 때까지 배고픈 줄 모르지만, 백 리나 되는 길을 갈 사람은 전날 밤에 충분히 식량을 마련하고, 천 리 먼 길을 가는 사람은 삼 개월 전부터 식량을 모아서 준비한다. 그런데 매미나 비둘기 같이 작은 것이 어찌 이러한 이치를 알겠는가.

소소한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수명은 긴 수명에 미치지 못한다. 어떻게 그런 줄 아는가? 아침에 잠깐 사는 버섯인 ‘조균’은 하루를 다 알지 못하고, 한 계절만 사는 쓰르라미인 ‘혜고’는 계절의 변화를 알지 못하는데, 이것이 짧은 수명이다. 초나라 남쪽에 ‘명령’이란 거북이 있는데, 이 거북은 오백 년을 봄으로, 오백 년을 가을로 하며 산다. 아주 먼 옛날 ‘대춘’이라는 나무는 봄과 가을을 각각 팔천 년씩 하여 살았다. 그런데 ‘팽조’는 요즘에 오래 산 사람으로 유명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데, 명령이나 대춘에 견주어 보면 가련하지 않은가!

- 해냄에듀 고전, 장자 소요유 편, 고전

[라] 당신이 태어난 위대한 유럽에는

자유의 나라들이 번성하고 있지요.

물질의 풍요와 산업과 기술

모두를 가지고 있지요.

그곳은 세속의 기쁨이 더 크고

분주한 생활도 더 많겠지요.

과학도 문학도 그리고 모든 일들이

더 많이 변하고 있겠지요.

이곳에 사는 우리에게 진보는 없어도

우리에게겐 기쁘고 평온한 마음이 있어요.

기술은 없어도

우리에게겐 더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지요.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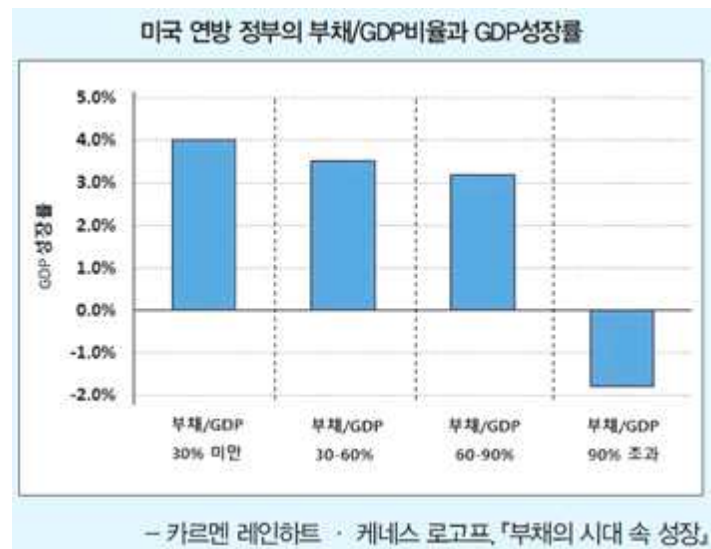
[마] 193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예측하기 위해 미국의 잡지사인 “리터러리 다이제스트 (The Literary Digest)”는 공화당의 랜든 후보와 민주당의 루스벨트 후보의 지지도를 알아 보기 위해 잡지의 구독자들을 중심으로 1,000만명에게 우편엽서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전화번호부와 자동차 등록 명부를 사용하여 구독자들의 연락처를 파악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약 230만 명 중 랜든의 지지율이 57%인 반면 루스벨트의 지지율은 43%에 머물러 이 잡지사는 랜든 후보의 압도적인 우세와 당선 가능성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루스벨트 후보가 61%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우선 이 잡지의 구독자들이 미국 전 국민의 성향을 대표할 수 없었고, 구독자들의 연락처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 당시의 전화번호부와 자동차 등록 명부에는 대부분의 저소득층이 제외된 것에 큰 문제가 있었다.

- **지학사 사회문화**

[바] 2002년 농촌 진흥청은 “대입 수험생의 아침 식사가 수능 성적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에서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6월에 실시한 조사결과 아침 식사 횟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수능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조사 결과 ‘아침 식사의 충실성’과 ‘수능 성적’의 상관 관계가 밝혀졌을 뿐, 인과 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농촌 진흥청에서는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수험생은 포도당 섭취로 두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집중력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을 뿐, 수험생의 아침 식사의 충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와 그것이 수능 성적에 미친 효과 등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 **미래엔 사회, 한국일보, 2002년 7월 6일자 기사**

[사] 아래 그림은 미국 정부의 부채와 GDP 성장률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과, 그와 관련된 서술이다.



우리가 던져야 될 진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높은 부채가 낮은 경제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가 부채를 줄여야 하는가? 아니면 낮은 경제성장이 부채 부담을 증가시킨 원인인가? 만약 관찰된 상관관계가 후자의 이유를 반영한다면 이 연구결과가 정부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작을 것이다.

- 벨시 스티븐슨·저스틴 울퍼스, 『블룸버그』, 2013. 4. 28

□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1. 출제의도

한 동안 발전은 근대화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 왔고, 한국과 발전도상 국가들은 발전을 향한 근대화에 모든 힘을 쏟았다. 나아가 경제적 근대화, 즉 부의 축적이 안정적 민주주의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다수의 학자들 사이에서 근대화는 일종의 지도 혹은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졌고, 선진국의 개발전문가들은 후진국에서 근대화의 방법을 설파해 왔다.

그러나 지배적 패러다임으로서의 근대화와 이것의 시사점으로서의 안정적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비판도 지속되어 왔다. 나아가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인문사회과학의 현실에서 지배적 패러다임은 부정적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근대화와 민주주의 간 관계와 시사점에 관해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문제를 설계하였다.

제시된 지문 [가]와 [나]는 근대화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근대화와 안정적 민주주의 간 관계와 시사점에 관한 내용을 포괄한다. 아울러 비판적 관점의 근거로서 [다]와 [라]는 근대화 패러다임의 한계와 근대화가 가정하는 발전목표의 제한성을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마], [바], [바]는 관계성이 인과성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비판할 수 있는 근거인 표본의 제한성,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및 역인과성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2. 문항해설

[가]는 근대화의 개념을 사회, 경제, 및 정치적 차원에서 설명하고, [나]는 근대화, 특히 경제적 근대화가 안정적 민주주의라는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는 상관관계를 근거로 근대화이론이 학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패러다임을 형성했다는 점을 제시한다. [가]와 [나]는 이는 근대화가 좋은 혹은 바람직한 발전의 과정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경제적 근대화론으로 인한 안정된 민주주의가 발생한다는 결론에 대한 증거는 상관관계 이상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의 결론은 많은 학자들이 하나의 지도 혹은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가]는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인문사회과학의 지식세계에서는 모든 지식이 상대적일 수 있기에 일종의 지도 혹은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나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라]는 근대화론의 발전이 물질적 풍요는 가져 올지라도 정신적 행복을 해칠 수 있기에 [가]와 [나]의 결론과 시사점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사]는 경제적 근대화와 안정적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는 그 관계성의 기초가 되는 표본의 대표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론적 설명이 부재하다는 점, 그리고 역인과성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하나의 지도 혹은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 비판의 근거를 제시한다.

3. 채점기준 및 참고사항

- [가]의 근대화에 대한 종합적 정의를 기반으로 [나]의 경제적 근대화로부터 안정적 민주주의가 발생한다는 관계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가?
- [나]의 경제적 근대화로부터 안정적 민주주의가 발생한다는 관계적 결론이 다수의 학자들 사

이에서 하나의 지도 혹은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 졌다는 점을 근거로 근대화는 바람직하다 혹은 좋다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가?

- [다]를 근거로 인문사회과학의 지식이 제한된 경험에 기초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여 근대화와 민주주의 관계성을 비판할 수 있는가?
- [라]에서 근대화와 발전이 물질적 풍요를 가져 올지라도 정신적 행복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근대화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시사점을 비판할 수 있는가?
- [마]의 통계적 오류의 원인이 된 표본의 제한성을 근거로 경제적 근대화와 안정적 민주주의 간 상관관계의 기초가 된 표본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가?
- [바]의 상관관계는 반드시 인과관계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경제적 근대화와 안정적 민주주의 간 상관관계에 대한 인과적 설명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가?
- [사]의 역인과성을 기초로, 경제적 근대화와 안정적 민주주의 간 관계가 반대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는가?
- 종합적으로 [다], [라]의 관점에서의 비판과 [마]~[사]의 관점에서의 비판은 다른데, 이를 구분하여 서술 할 수 있는가?

4. 예시답안

[가]와 [나]는 근대화와 그 결과로서 민주주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가]에서 근대화가 구조적 변화를 통해 사회를 좀 더 향상된 생활 조건으로 바꾸는 과정이라면 [나]의 립셋은 이를 적용하여 경제적 부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립셋이 종합적 통계검증을 통해 상관관계를 밝혔기 때문에, 그의 연구는 근대화가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유지한다는 결론과 함께 근대화가 바람직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이는 학자들에 의해 ‘하나의 지도’로 받아들여 졌다.

경제적 발전이 안정적 민주주의를 형성하고, 이것이 좋은 혹은 바람직한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다], [라]의 일반적 관점과 [마]~[사]의 구체적 및 실증적 관점에서 서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다]의 장자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간의 지식은 그 경험의 한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상대적이고 [라]의 지문이 예시하듯이 근대화 라고 하는 것이 생활의 향상을 가져 올지라도 행복과 같은 정신적인 측면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의 결론과 시사점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질 필요는 없다. 즉 근대화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경제적 부와 민주주의 상관관계도 확고한 지식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아가 [마]의 대통령 선거설문조사가 예시하듯이 립셋이 활용한 자료가 대표성을 가졌다고 확인할 수는 없으며, [바]의 지문이 강조하듯이 립셋이 발견한 통계적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라는 점은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바]가 역인과관계의 문제를 제기하듯이 경제적 부가 민주적 제도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제도들이 오히려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의 근대화와 [나]의 경제적 부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가 제시하는 결론과 시사점은 한계를 가진다.

결론적으로 근대화와 안정적 민주주의의 관계를 받아들이기에는 좀 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할 것이며, 불충분한 근거에 기초하여 근대화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